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연꽃의 이미지

배다니엘*

目 录

- I. 서론
- II.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연꽃의 이미지
 - 1.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
 - 2. 단아하고 청초한 향과 자태 칭송
 - 3. 정결하고 순수한 품성의 반영
- III. 결어

I. 서론

‘蓮(Lotus, 학명 *Nelumbo nucifera*)’은 다년생 초본의 수생식물로서 인도가 원산지이다. 연못이나 강가에서 잘 자라며 논이나 늪지의 진흙 속에서도 잘 자란다. 6-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잎겨드랑이(腋生)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지름 15-20cm의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한 송이씩 달린다. 연잎은 원형으로 대략 30-50cm 정도의 큰 잎이 뿌리줄기에서 나온 긴 잎자루에 달려 있는 형태이다. 뿌리줄기는 땅 속에서 길게 옆으로 뻗는데 원기둥 모양이고 마디가 있다. 뿌리를 연근(蓮根), 열매를 연밥이라고 하며 씨와 함께 식용한다. 중국에서 ‘蓮’은 종류와 품종에 따라 ‘雷芝’, ‘蓮荷’, ‘曼陀羅花’, ‘水丹花’, ‘蓮花’, ‘荷花’, ‘簾車’, ‘芙蓉’, ‘芙渠’, ‘睡蓮’, ‘水芙蓉’, ‘玉環’, ‘六月春’, ‘六月花神’, ‘藕花’, ‘靈草’, ‘玉芝’, ‘水芝’, ‘青蓮’, ‘菡萏’ 등 다양한 이칭으로 불리고 있고,¹⁾

*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물 부용’, ‘부용’, ‘不語仙’, ‘池見草’, ‘물꽃’ 등의 이칭을 갖고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자라면서도 깨끗하고 기품 있는 꽃을 피워내기에 周敦頤가 「愛蓮說」을 쓴 것을 비롯하여 선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불가에서는 ‘연꽃(蓮花)’을 ‘蓮華’로도 명명하면서 부처나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으로 간주하고 있다.²⁾ 연뿌리 수확을 위해 재배하는 연꽃은 주로 백색이며 불교의 관상용은 주로 연한 홍색이다. 전통적으로 ‘十大名花’에 속할 정도로 대중적인 애호를 받는 꽃이며 농작물로도 많이 재배되어 왔다. ‘蓮’은 ‘戀’과 諧음을

- 1) 다양한 연꽃 이칭 중 역대 시문에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는 ‘蓮花’, ‘荷花’, ‘芙蓉’, ‘芙蕖’, ‘睡蓮’ 등이 있다. 크게 보아 ‘荷花’, ‘芙蓉’, ‘芙蕖’ 등은 ‘蓮’의 별칭, ‘睡蓮’은 ‘蓮’의 이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밀하게 보면 ‘荷花’, ‘芙蓉’, ‘芙蕖’ 등의 기질과 성품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荷花’의 花期는 6월에서 8월 사이인데 비해 ‘芙蓉’은 9월에서 10에 개화하며, ‘荷花’는 땅 아래로 길고 두터운 줄기를 두고 있고 잎이 원형으로 빛나는 형상에 만졌을 때 미세한 가시 털 느낌이 있는데 비해 ‘芙蓉’은 줄기에 짧은 털을 갖고 있고 타원형 큰 잎에 가시 털 촉감이 없는 것이 비교된다. ‘芙蕖’는 이미 개화하여 활짝 핀 연꽃을 이르는 칭호이며 ‘臨沂’ 지역의 연꽃 이칭이기도 하다. 그밖에 ‘蓮’의 이종인 ‘睡蓮’은 비교적 작은 잎을 갖고 있고 다른 연꽃보다 낮게 물 위로 꽃을 드리우며 밤이면 꽃잎을 말아 들여 마치 잠드는 것 같은 형상을 하므로 ‘睡蓮’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역대 시문에서 宋代 楊萬里가 “하늘로 이어진 ‘蓮’잎은 무한히 푸르네, 해를 맞아 빛나는 ‘荷花’는 별스럽게 붉구나.(接天蓮葉無窮碧, 映日荷花別樣紅.)”(「曉出淨慈寺送林子方」)라고 한 것처럼 연꽃을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른 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커다란 구분 없이 ‘蓮花’, ‘荷花’, ‘芙蓉’ 등의 명칭을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 2) 佛家에서 연꽃은 부처의 높고 맑은 인격, 맑고 높은 덕을 갖춘 사람(부처)을 상징하며, ‘蓮華藏’ 즉 ‘極樂淨土’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부처의 탄생을 알리려 연꽃이 피었다는 설과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신자가 연꽃 위에 신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믿음과도 연관이 있다. 고대 인도의 민속에서는 연꽃을 여성의 생식, 생산, 힘과 생명의 창조, 풍요, 행운, 번, 장수, 건강, 명예,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함,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등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였다. 한편 儒家의 학자인 宋代 周敦頤 역시 「愛蓮說」을 지어 연꽃에 대한 특별한 애호의식을 밝히기도 하였으니 연꽃은 불가와 유가 모두에서 칭송과 주목을 받은 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문인들은 특정 종교의 시선을 배제한 채 연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목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어 연꽃이 다수의 애호를 받았던 꽃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루므로 연애의 감정을 묘사할 때 많이 인용되었고 씨앗을 많이 맺으므로 민간에서는 다산의 징표로 삼았다. 연꽃은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꽃과 잎을 차로 먹고, 잎, 씨앗, 뿌리 등을 식용, 약용으로 두루 활용하는 덕에 예로부터 실용성이 강한 식물로 알려져 왔다.

연꽃은 습지를 선호하는 식물로 단아한 꽃과 크고 상쾌한 잎을 통해 맑고 청아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꽃이다. 수면 위에 몇 줄기가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균락을 이루며 자라는 경우도 많다. 아침이 되어 밤새 오므렸던 꽃잎을 활짝 피어내면서 햇살을 맞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비가 올 때 연잎 위를 오가는 물방울의 자태 역시 이채로운 시상을 유발한다. 진흙에 뿌리를 두면서도 물 위에 고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의 속성 또한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여 역대 문인들은 연꽃의 아름다운 자태와 다양한 특색을 주목한 묘사를 끊임없이 가하여왔다. 사랑의 감정,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맑고 깨끗함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연꽃을 매우 큰 상징성을 지닌 식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름이 되면 친근한 자태로 피어나 환한 기쁨을 선사하는 연꽃이 각종 중국 고전시문에서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고 등장하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詩經』이나 『楚辭』에 등장한 ‘蓮’의 모습 연구, ‘蓮’의 이미지 발전 양상 연구, ‘蓮’, ‘荷花’, ‘芙蓉’ 등이 등장하는 시문에 대한 분석 등의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중국 시가에 등장하는 ‘蓮’에 관한 전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³⁾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틀을 넓혀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연꽃의

3) 그간 중국에서 발간된 ‘蓮’에 대한 연구는 俞香順, 「荷花‘楚辭’原型意義探討」, (《雲夢學刊》, 24권, 2003. 11.) 등의 특정 작품과 연관된 연꽃 형상 연구, 李青雲, 「從唐宋荷花詩詞管窺唐宋文人愛花心態」, (《鄂州大學學報》, 2012. 5.), 吳倩倩, 「論唐宋江南采蓮詩詞」, (《湖州職業技術學院學報》, 2012. 제4기) 등唐宋을 비롯한 특정 시기 연꽃 시가에 관한 연구, 張文文, 「論蓮荷意象在唐代的發展演變」, (中國石油大學 석사논문, 2014. 4.) 등의 연꽃 이미지의 변화 양상 연구, 劉麗丹, 「淺析古代詩歌中的荷花意象」, (《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 28권, 2008. 3.)을 비롯한 고전 시가에 나타난 연꽃 이미지 연구 등의 방향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그간 연꽃에 관한 중국에서의 연구가 다

묘사양상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역대 시가에서 묘사된 연꽃의 풍모와 이 속에 담긴 꽃의 미학적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시가 중에 등장하는 연꽃의 이미지를 정리하는 것은 문학작품에서 언급된 각종 수목에 대한 전반적 연구에 있어 하나의 기초적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II.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연꽃의 이미지

1.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

넓은 호수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여름에 피어나 사방에 향을 날리는 연꽃 무리는 장관을 연출한다. 푸른 잎을 받치고 오롯이 피어난 연꽃 한 송이의 단아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아련한 서정을 느끼게 하며 꽃을 이고 넓게 퍼져나간 푸른 잎은 더없이 풍요로운 기쁨을 느끼게 한다. 이 시기 농민들은 작은 배를 몰고 연꽃 사이를 다니며 연을 따는데 연을 따는 처녀들의 수줍은 웃음과 경쾌한 노래 소리는 호수의 정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 요인이 된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흠날리는 중에 함께 퍼져나가는 처녀의 웃음과 노래 소리는 아름답고 소박한 사랑의 감정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며, 배를 저어 연밭을 채취하는 농민들 중에 총각과 처녀가 있다면 사랑의 서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 진다. 연꽃의 ‘蓮’은 ‘戀’과 諧音을 이루기에 예로부터 연꽃은 사랑과 연모의 상징으로도 인식되어져 왔다. 이 연꽃의 ‘사랑’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采蓮曲」이다. 본래 「采蓮曲」은 민간에서 연을 따는 정경을 노래한 곡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사랑의 서사가 다분히 많이 담겨 있어 ‘采蓮’ 행위를 통해 ‘采戀’의 이미지를 느낄 때가 많다.⁴⁾ 연꽃의 이미지 중 ‘戀慕’, ‘戀情’의 감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

양한 방면에서 언급된 것에 비해 다소 산발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꽃의 이미지를 취합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연꽃이 사랑의 감정을 대변하게 된 작품으로는 『詩經』에서 연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입을 떠올리는 내용을 담아냈던 것을 효시로 볼 수 있다.

『詩經』「陳風」「澤陂」
 彼澤之陂 저 못의 독에
 有蒲與荷 부들과 연꽃이 있네
 有美一人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傷如之何 내가 상심한들 어찌리
 寤寐無為 자나 깨나 어찌할 수 없어
 涕泗滂沱 눈물과 콧물만 흘리노라

彼澤之陂 저 못의 독에
 有蒲與蘭 부들과 난초가 있네
 有美一人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碩大且卷 풍만하면서도 아름답네
 寤寐無為 자나 깨나 어찌할 수 없어
 中心悁悁 마음속에 근심만 가득하네

彼澤之陂 저 못의 독에
 有蒲菡萏 부들과 연꽃이 있네
 有美一人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碩大且儼 웅장하면서도 의젓하도다
 寤寐無為 자나 깨나 어찌할 수 없어
 輾轉伏枕 뒤척이며 베개에 엎드려 있네

연못에 있는 부들과 연꽃은 물과 어우러져 유별난 흥취를 느끼게 한다. 마음에 둔 여인과 총각을 보면서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심정을 묘

4) 「采蓮曲」은 원래 梁武帝가 창작한 「江南弄」 7곡 중 하나의 곡명이다. 「江南弄」 중의 「采蓮曲」 내용 역시 江南 水鄉에서의 청춘남녀 간의 애정묘사가 주를 이룬다. ‘蓮’은 ‘戀’과 諧音을 이루고 있기에 사랑과 연모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역대 시인들이 「采蓮曲」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묘사를 가해왔기에 그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하였는데 연모하는 이의 자태는 못과 독에 핀 연꽃처럼 환하고 아름답다. 마치 그리워하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듯 연꽃은 예쁜 꽃과 커다란 잎을 지닌 채 사랑의 상징성을 더해주고 있다.

『詩經』 이후로 樂府를 비롯한 民歌에 「采蓮曲」이 등장하면서 ‘蓮’이라는 글자에서 연상되는 사랑의 상징성을 본격적으로 투영하게 된다. 많은 문인들이 「采蓮曲」을 통해 연꽃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서사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采蓮曲」들은 ‘蓮’과 ‘戀’의 諧音현상을 교묘히 활용하거나, 연꽃과 어우러진 호수 정경, 연 따는 아가씨의 웃음, 노래, 옷자락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풍경 묘사 등을 통해 사랑의 서정을 한껏 배가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唐代 王昌齡이 연 따는 정경 속에 사랑의 감정을 투영한 작품 「采蓮曲」 두 수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여 사랑의 상징성과 여운을 효율적으로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두 수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采蓮曲」其一 (연 따는 노래) 제1수

吳姬越艷楚王妃 吳越의 미녀와 楚王의 虞美人과도 같은 아가씨들
爭弄蓮舟水濕衣 연 따는 배를 다투어 저어가니 물에 옷이 젖는 구나
來時浦口花迎入 포구로 돌아올 때면 꽃들이 아가씨들을 받기며
采罷江頭月送歸 연 캐는 일을 마친 강가에서 달빛 맞으면서 돌아가나니

연 캐는 아가씨들을 중국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西施, 虞美人과 같은 반열에 놓고 있음은 연꽃과 어우러진 아가씨들의 모습이 특별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 따는 배를 다투어 저어간다는 ‘爭弄’ 표현 역시 미인들이 아름다움의 우열을 놓고 서로 시샘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물이 옷을 적신다(水濕衣)’, 같은 표현은 연꽃 채취 상황을 세미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린 부분이지만 연 캐는 작업을 경쟁하는 장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⁵⁾ 돌아오는 아가씨들을 꽃이 반긴다고 하는 표현이나 ‘달빛

5) 이 시의 ‘爭弄蓮舟’ 구절과 관련하여 唐汝詢은 『唐詩解』에서 “연을 캐는 행위가 (吳,

을 맞으며 돌아간다(月送歸)’는 표현에서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현실을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흔적이 남아있다. 전체 시의 구성을 보면 연꽃을 사랑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 보다는 아가씨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그리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나간 것이 발견된다. 아가씨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이면에 연꽃이 연출하는 정경이 한 몫을 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采蓮曲」其二 (연 따는 노래) 제2수

荷葉羅裙一色裁 연잎은 연 따는 이의 치마와 같은 녹색이며
芙蓉向臉兩邊開 부용은 미인의 얼굴처럼 양쪽에 피어 있네
亂入池中看不見 연못 속 연꽃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
聞歌始覺有人來 노래 소리를 듣고서야 누군가 오는 것을 알게 된다네

연 잎들 사이에서 연 따는 처녀가 입은 옷은 녹색이라 蓮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연꽃과 미인의 얼굴이 섞여 있는 조화의 경지를 자연스럽게 표현된 셈이다. 결구에서 노래 소리를 듣고서야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표현 역시 꽃과 사람이 渾然一體 된 경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 수법이다. 연모 하되 잡히지 않는 사랑의 실체처럼 아련한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꽃(蓮)’과 ‘그리움(戀)’ 사이에 존재하는 오묘한 사랑의 상징성을 은유적 표현으로 처리한 것이 느껴진다.

白居易가 쓴 연 따는 노래 역시 연꽃을 배경으로 만난 남녀의 사랑의 감정을 한층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연꽃의 신비함과 사랑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越, 楚) 삼국에서 성행했기에 이 구절을 예거한 것이다.(采蓮之戲盛於三國, 故並舉之.)”라는 해석을 가한 것이 발견된다. “연꽃 캐는 배를 경쟁적으로 짓다보면(爭弄蓮舟)” “물이 튀어서 옷이 젖을(水濕衣)”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반영한 평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경쟁이나 놀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증여부는 차치하고 이 “물이 튀어서 옷이 젖는다(水濕衣)”는 구절을 연 캐는 아가씨들의 명랑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로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采蓮曲」(연 따는 노래)

菱葉菰波荷脆風 마름 잎 물결에 영키어 있고 연은 바람에 하늘거리는데
 荷花深處小船涌 연꽃 그득한 곳에서 작은 배가 드러나네
 逢郎欲語低頭笑 마주친 총각에게 말 걸고 싶지만 고개 숙여 웃게만 되
 고
 碧玉搔頭落水中 푸른 비녀를 물속에 빠뜨리게 된다네

연 따던 소녀가 의중에 있던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말을 걸려 하지만 부끄러움에 그저 고개를 수그리게 된다. 오히려 당황하여 비녀를 물속에 떨어뜨리는 실수까지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 사랑에 긴장하는 청춘남녀의 솔직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소박하고 진실한 연모의 정을 행간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이다.

皇甫松이 연을 따는 모습을 묘사한 다음 작품에서도 연 속에 이입된 수줍은 사랑의 서사가 담겨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采蓮子」(연을 따다)

船動湖光盪盪秋 배 흔들리고 호수에 햇살 비추며 그득한 물결 출렁출렁
 貪看年少信船流 젊은 총각 바라보고자 하니 배는 마음대로 흘러가네
 無端隔水拋蓮子 까닭 없이 물 건너로 연밥을 던져버리다
 遙被人知半日羞 멀리 있는 다른 이에게 들키니 한나절 보낸 시간 부끄
 러워지네

연 따는 소녀는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겨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이다. 연 따는 배가 햇살을 맞아 흔들리는 것과 출렁이는 호수 물결은 그리움에 마음을 일렁이는 소녀의 감성을 대변한다. 연 따는 것은 뒷전이고 젊은 총각을 훑쳐보다 보니 배는 어느덧 마음대로 흘러가 버린다. 까닭 없이 물 건너로 연을 던지는 행위는 잡히지 않는 사랑의 실체와 그리움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투사하는 행위를 연상시킨다.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한 없이 사랑스러운 느낌을 얻게 된다. 이 시에 등장하는 ‘蓮’은 ‘그리움(戀)’과 ‘戀慕’의 정을 대변하는 치환물일 뿐이다.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동안은 도처에 심겨진 연꽃이 자신의 향기를 풍기는 시기요 연을 따는 사람들의 모습이 호수, 하늘, 연꽃 등과 어우러져 한 폭의 정경을 이루는 시기이다. 고운 처녀가 하늘거리는 바람에 치맛자락을 날리며 푸른 연잎 사이에서 수줍게 노래하는 모습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을 느끼게 한다. 연을 따는 정경을 노래한 「采蓮曲」 작품에는 단순한 농사행위나 연이 핀 풍경의 묘사 이상의 다양한 감성이 의례 투영되기 마련이다. 호수와 하늘을 배경으로 넓게 펼쳐진 붉은 연꽃과 푸른 연잎의 조화로운 모습은 그 자체가 한 폭의 풍경화인데 그 속에는 연을 따는 행위를 통해 연모의 감정을 펼치거나 사랑의 감정을 투영하는 등 다양한 의식과 서정이 한껏 이입되어 있다. 「采蓮曲」으로 대변되는 연꽃의 사랑과 그리움의 이미지는 ‘蓮’과 ‘戀’의 諧音효과에서 기인한 바가 크지만 그 기저에는 연꽃이 소유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서정이 주된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2. 단아하고 청초한 향과 자태 칭송

드넓은 호수나 강가를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 연꽃 원경은 보는 이의 시야에 한없는 풍성함을 제공한다. 가까이에서 연꽃을 대하면 연잎의 둥근 자태로 인해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을 수 있으며, 오뚝 선 줄기 위에 환하게 피어있는 꽃을 마주하다 보면 그 아름답고 밝은 모습에 마음까지 온통 환해지게 된다. 연꽃의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여 바람이나 충격에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풍을 맞아 흔들리는 연꽃의 자태에서 유연한 아름다움과 강인한 생명의 미를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 연꽃은 “명사의 여식(名士之女)”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연꽃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단아한 자태와 그윽한 향기를 지닌 채 표일한 기품과 고아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한 표현일 것이다. 진흙의 더러움을 중화시키고 자신의 향기를 통해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연꽃의 능력⁶⁾은 단아하고 밝은 외모를 지닌

6) 역대 시문에 나타난 연꽃에 대한 언급은 연꽃의 외모 뿐 아니라 각종 장점과 효용성

여인이 고운 마음씨로 주변에 덕을 전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니 연꽃은 내면과 외면이 공히 아름다운 미인이라 할 수 있다. 연꽃에 대한 칭송은 역대 시문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왔는데 연꽃에 관한 묘사를 보면 일차적으로 연꽃이 발하는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은 편이다. 연꽃의 자태, 향기,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미감의 창조 등을 주목한 작품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꽃은 수생식물이라 강가나 호숫가에 피어있으므로 연의 자태를 좀 더 잘 감상하려면 배를 타고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연꽃을 노래한 작품 중에는 배를 타고 가면서 원경과 근경에 따른 연꽃의 모습을 그려낸 내용이 많다. 南朝 梁 元帝 蕭繹이 강에 배를 띄우고 유람하며 연꽃을 감상하는 내용을 표현한 작품을 보면 연꽃의 자태와 향기가 주는 미감을 독특한 감각으로 그려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賦得涉江采芙蓉」(‘강을 따라가면서 연을 따며’라는 제목으로 짓다)

江風當夏清	강남에 여름은 청아하기도 하여
桂楫逐流縈	계수나무 노 저어 굽이굽이 흘러가네
初疑京兆劍	연꽃 자태는 처음 볼 때 마치 京兆尹의 검과도 같더
復似漢冠名	다시 보매 漢나라의 冠과도 같구나
荷香帶風遠	연꽃 향기 먼 바람에 실려 오고
蓮影向根生	연 그림자는 뿌리를 향해 드리워져 있다
葉卷珠難溜	연잎이 말리니 물방울 흘러가기 어렵고
花舒紅易傾	꽃이 퍼지니 붉은 색이 기울어지는 듯

과 연계된 내용이 많다. 일례로 周敦頤가 「愛蓮說」에서 “진흙에서 나왔으나 물들지 아니한다(出淤泥而不染)”라고 한 것은 오염된 진흙을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산소를 배출해내어 더러움을 중화시키는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연꽃이 잎 표면에 물이 통하는 미세한 관을 지니고 있어 쉽게 오염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향기는 멀수록 더 맑아지고(香遠益清)”라고 한 구절은 연꽃이 산소작용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고 진흙의 악취를 제거하며 자신의 향기를 대신 채우는 특성을 주목한 언급이다. 다만 연꽃은 무리를 지어 자라는 특성이 있고 진흙 속에서 서로 뿌리를 이어나가므로 「愛蓮說」에서 “넝쿨을 치지도 않고 가지를 뺏지도 않으면서(不蔓不枝)”라고 한 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日暮鳥舟滿 해 저무는 풍경은 오리 문양 배 위에 그득한데
歸來度錦城 돌아오며 다시금 錦城을 건너나니

앞 사이로 빠죽이 솟은 연꽃의 모습이 검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다가도 화관 위에 환하게 벌어진 모습은 漢代 면류관을 연상하게도 한다. 옛날 京兆에 ‘芙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날카로운 검이 있었고, 漢代 궁녀가 쓰던 모자 중 ‘芙蓉冠子’라는 이름을 지닌 모자가 있었음을 상기하며 연꽃을 묘사한 것이다. 연꽃이 물 위로 솟은 모습을 ‘劍’으로 표현했다면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冠’으로 표현한 것이 대비된다. 원근법을 활용하여 먼 바람 타고 전해지는 연꽃 향기, 물 아래로 드리워진 연잎 그림자, 연잎에 머무는 진주 같은 물방울, 붉은 자태를 펼치면 새롭게 느껴지는 연꽃의 아름다움 등에 관한 묘사를 효율적으로 창출해냈다. ‘京兆劍’, ‘漢冠’ 같은 특별한 비유와 함께 ‘오리 문양 배(鳥舟)’, ‘錦城’ 등의 어휘에서 호사스러운 이미지도 느껴지지만 연꽃의 곱고 화려한 모습을 강조하는 전반적인 내용과 일정한 조화를 이루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宋代 范成大的 작품 중에도 배를 띄우고 연꽃을 감상하면서 꽃의 매력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상황을 그린 시가가 있다.

「立秋後二日泛舟越來溪」(입추 다음 날 월래계에 배를 띄우고)
西風初入小溪帆 가을바람이 작은 배 돛에 처음 불어오니
旋織波紋縹淺藍 배는 파도를 일으키며 열게 푸른 물결에 무너를 일으킨다
行入鬧荷無水面 연꽃 사이로 들어가니 무수한 연꽃들 다투듯 수면에 끝없이 펼쳐 있어
紅蓮沈醉白蓮酣 붉은 연꽃에 깊이 취하고 흰 연꽃에 미혹되누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계절에 작은 배로 강 위를 떠가면서 마주하는 붉고 흰 연꽃에 대한 깊은 감흥이 잘 투영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연꽃을 등장시키지 않고 물 위에 떠가는 배를 중심으로 원경을 그림으로써 연꽃의 등장을

기대하게 하는 ‘比興’의 수법을 활용하였다. 후반부에 묘사된 연꽃의 모습은 눈앞에 무한히 펼쳐진 형태로 감흥과 서정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⁷⁾ 末句에서는 ‘醉’와 ‘酣’자를 통해 미인처럼 고운 자태를 한 채 피어 있는 붉고 흰 연꽃을 대하다 어느덧 깊게 미혹되어 버린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

南朝時代 梁나라 沈約은 물 위에 뜬 연꽃의 자태를 보며 자신의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을 표현한 바 있다.

「詠芙蓉」(연꽃을 노래하다)

微風搖紫葉	미풍이 자색 잎을 흔들어대고
輕露拂朱房	가벼운 이슬이 막 피어난 꽃망울을 쓸어내리네
中池所以綠	연못 한 가운데 저 푸르른 잎을 지닌 부용이
待我泛紅光	나를 기다렸다 붉은 자태를 물 위에 띄웠네

‘微風’과 ‘輕露’로 여름의 경쾌한 기분을 드러냈고 물 위에 피어난 연꽃을 자색, 녹색, 붉은 색 등 다양한 색을 동원하여 청신하게 묘사하였다. 결국에서 연꽃이 자기를 기다렸다 붉은 자태를 물 위에 띄웠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느낀 산뜻한 자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唐代 賈謨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의 자태를 주목한 시를 살펴본다.

「賦得芙蓉出水」(연꽃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노래함)

的皪舒芳艷	곱고 향기로운 모습을 환히 펼치면서
紅姿映綠蘋	붉은 자태를 녹색 잎에 비추고 있네
搖風開細浪	바람 맞고 피어있는 중에 가는 물결 일렁이고
出沼媚清晨	연못 위에 곱게 떠서 새벽을 아름답게 하네
翻影初迎日	해를 처음으로 맞아 모습이 바뀌더니

7) 특히 ‘鬧荷’ 구절은 北宋 宋祁의 「玉樓春春景」 “동성에 봄 풍경 점차 좋아지는데, 아름다운 물결 일렁이며 객을 맞이하러 가는 배. 푸른 버들은 연기 밖에 보이며 새벽 차가움에 가볍게 흔들리는데, 붉은 살구꽃 가지 위로는 봄뜻이 다투고 있구나.(東城漸覺風光好, 縠皺波紋迎客棹. 綠楊煙外曉寒輕, 紅杏枝頭春意鬧.)” 중에 나오는 명구 ‘紅杏枝頭春意鬧’의 의경을 차용한 것이다.(劉銜, 『詠花古詩欣賞』, (北京: 語文出版社, 1999), 제49쪽 참조)

流香暗襲人	퍼지던 향기 어느새 사람에게 전해지누나
獨披千葉淺	유독 저 천엽연만이 얇게 피어나
不競百花春	온갖 봄꽃들과 다투지 않네
魚戲參差動	물고기는 요리조리 움직이며 물을 희롱하고
龜遊次第新	자라는 다시금 놀러 나왔구나
涉江如可采	강을 따라가며 연을 캘 수 있다면
從此免迷津	이곳에서부터는 길을 잃지 않으리라

절정에 있는 연꽃의 곱고 향기로운 모습을 붉은 색과 녹색의 대비를 통해 부각시켰고 이어 주변 정경까지 시선을 확대시켰다. 연꽃의 색과 향기와 같은 특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주변 정경까지 환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꽃잎이 특히 가늘어 이름을 얻은 천엽연이 다른 봄꽃보다 늦게 피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모습에서 연꽃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미풍, 가는 물결, 맑은 새벽, 해 그림자, 물고기의 노닐음, 자라의 행락 등 주변의 세부적인 환경은 연꽃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주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연꽃을 위해 주변 풍경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일체된 정경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宋代 歐陽脩는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의 오묘한 자태를 칭송한 시를 남겼다.

「荷葉」(연잎)

池面風來波艷艷	못 위에 바람 불어오니 물결 곱게 일어
波間露下葉田田	물결 사이로 무성한 연잎 자태 드러나네
誰于水面張青蓋	그 누가 수면에 이 푸른 우산들을 펼쳐 놓았나
罩却紅粧唱采蓮	붉게 치장하고 연 따는 노래 부르는 여인들을 우산 씌워주네

연꽃이 아름다운 모습을 피워낸 후 온통 녹색 잎으로 뒤덮인 연못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가하고 있다. 물결 이는 사이로 마치 우산처럼 커다란 잎을 드리운 연잎의 자태는 시인의 시흥을 한껏 드높이는 경이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 속에 묻혀 노래하면서 연밥을 따는 여인들의 모습

또한 이 청신한 정경을 수놓는 중요 부분이 된다. 한편의 고운 풍경화와도 같은 청신하고 유려한 정경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清代 曹寅은 연꽃의 향기가 주는 매력을 이채롭게 서술한 작품을 남겼다.

「荷花」(연꽃)

一片秋雲一點霞 한 조각 가을 구름 한 점의 붉은 노을
十分荷葉五分花 온통 연잎이요 그 중 반은 연꽃이라
湖邊不用關門睡 호숫가에서는 문을 잠그고 잘 필요가 없어
夜夜涼風香滿家 밤마다 서늘한 바람 일어 온 집안에 향기 그득하다네

제1구는 제2구와 대우를 이루는데 제1구 한 구절 내에서 다시 대우를 이루고 있다. 전반부 14자 중 숫자를 4자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연꽃의 아름다움을 효율적으로 대비시킨 수법이 뛰어나다. 후반부에서는 연꽃 향기가 좋기에 문을 닫아놓고 잘 필요가 없다는 과장 섞인 묘사를 가하였다. 허구적 상상을 실경으로 승화시킨 면이 뛰어나다.

宋代 文同은 연꽃을 묘사함에 있어 꽃, 잎, 향기를 두루 망라한 감정을 투영해 놓음으로써 연꽃의 미감을 형상화하였다.

「詠蓮」(연꽃을 노래하다)

金紅開似鏡 환하게 빛나는 붉은 연꽃은 마치 거울처럼 피어 있고
半綠卷如杯 푸르스름하게 새로 나는 잎은 술잔처럼 말려 있다
誰爲回風力 그 누가 바람의 힘을 돌려
清香滿面來 맑은 향기를 호수 면에 그득 불어오게 하였을까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연꽃의 자태는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아름다움을 주변에 비추고 있다. 이러한 자태를 보면서 시인은 '金紅'이라는 독특한 색감을 생각해내게 된다.

전반부에서 자태를 보면서 감탄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연꽃이 발하는 향기가 온 호수 면을 뒤덮고 있는 것에 대한 경이감을 표현하고 있다. 설문의 수법을

활용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신비로운 정경을 미처 형용할 수 없음을 일면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고전시에서는 수중 식물이 지닌 아름다움을 칭송할 때 洛水의 여신 宓妃나 湘水의 女神 전설에서 기인한 ‘凌波仙子’ 전고를 활용하여 묘사를 가한 것이 종종 발견된다. ‘凌波仙子’는 본래 수선화를 예찬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⁸⁾ 연꽃에게도 이 표현을 가한 경우가 많다. 연꽃 또한 수선화 못지않게 아름답고 신령한 이미지를 지닌 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宋代 洪適이 붉은 연꽃에 대한 찬미를 가한 다음 작품을 보면 水神의 매력을 가미하여 연꽃의 미감을 증폭시킨 것이 발견된다.

「多葉紅蓮」(여러 잎을 지닌 붉은 연꽃)
 步有凌波袜 연꽃은 마치 선녀가 물결 위를 걷는 버선발 같고
 掌爲承露盤 마치 승로반을 받치고 있는 것도 같네
 尙嫌花片少 꽃잎이 적은 것을 싫어하여서
 千葉映朱欄 천 개의 잎을 붉은 난간에 비추고 있나니

연꽃의 자태는 마치 선녀가 물결 위를 걷는 것과 같고 하늘을 향해 오롯이 솟아 있는 신령한 쟁반과도 같이 아름답고 신비롭다. 연꽃이 발하는 아름다운 서정을 표현하기 위해 ‘凌波袜’과 ‘承露盤’ 같은 고사를 가해 환상적인 미감을 증폭시켰다.⁹⁾ 연꽃은 비록 꽃잎이 적다해도 잎이 크고 무성하여 전체적으로

8) 水仙花와 神女, 神仙의 이미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역대 여러 시가에서 ‘洛水의 여신 宓妃’, ‘湘水女神’, ‘漢水女神’, ‘藐姑射山の 仙人’ 등으로 표현된 것 이외에도 宋玉의 「高唐賦」에 나오는 ‘巫山の 神女’, 물에 가라앉아 湘水의 객이 된 屈原, 붉은 잉어를 타고 涿水로 들어갔다는 男神 琴高, 洛神과 湘妃, 洛神과 漢女 등 각종 신령한 이미지가 가미된 형상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水仙花가 ‘水仙’의 한자어와 같은 표현을 씀으로써 일차적으로 신선의 형상을 떠올리게 된 것도 있지만 수선화의 자태가 그만큼 신령하고 초매한 기품을 지녔음을 주목하여 절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한 이미지 형상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水神과 결부된 연꽃의 이미지도 이러한 의식을 함께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凌波袜’은 曹植 「洛神賦」의 “물결 위를 사뿐히 걸어가니, 비단 버선에 먼지가 일어나네.(凌波微步, 羅袜生塵.)” 구절을 인용한 것이고, ‘承露盤’은 漢 武帝가 신선술을 좋아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기구와 승구에서 전고를 활용하여 연꽃이 지닌 몽롱한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자 한 것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연꽃 중에서도 잎의 성한 모습을 강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 돋보인다.

宋代 范成大가 지방관 시절 관청 앞 연못에 핀 연꽃이 발하는 고상한 향취를 감상하는 작품에도 ‘凌波仙子’ 전고를 활용한 예찬이 실려 있다.

「州宅堂前荷花」(주택당 앞의 연꽃)

凌波仙子靜中芳 일렁이는 물결 위의 선녀는 고요히 향기를 발하며
也帶酣紅學醉粧 취한 듯 두 뺨 붉게 물든 채 단장하고 있네
有意十分開曉露 새벽이슬 맞아 그득한 정을 펼치듯 꽃을 피워내고
無情一餉斂斜陽 비기는 저녁노을에 무정한 듯 꽃잎을 거두어들이네
泥根玉雪元無染 진흙에 뿌리를 두면서도 더러움이 일절 없으며
風葉青葱亦自香 바람이 잎에 일렁이니 푸른 자태 절로 향기롭구나
想得石湖花正好 생각건대 고향 石湖里的 연꽃은 지금이 한참 좋은 때라
接天雲錦畫船涼 하늘의 구름과 멋진 배의 어우러진 모습은 상쾌하기만
한데

미풍에 흔들리는 연꽃의 붉은 자태는 물의 여신이 물결을 밟고 서 있는 듯 몽롱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새벽이슬에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저녁이면 꽃잎을 거두어들이는 모습 역시 巫山の 神女가 아침저녁으로 신묘한 자태를 변화시킨다는 고사를 연상시키는 묘사이다.¹⁰⁾ 시인은 연꽃이 물결 따라 넘실대며 우아한 자태를 선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진흙의 더러움을 이겨내는 연꽃의 기질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范成大에게 있어 연꽃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좋은 자연물이 된다.¹¹⁾ 연꽃의 아름다운 향과 자태를 감

여 建章宮에 承露盤을 세워놓고 이슬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10) 宋玉의 『高唐賦』에 楚 襄王이 일찍이 高唐에서 놀다가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 부인이 와서 그녀와 잠을 자니 그녀가 “첩은 무산의 남쪽, 高丘 아래에 있으며 아침에는 朝雲이 되고 저물녘에는 行雨가 됩니다.(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爲朝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라고 하였다는 고사를 연상시킨다.

11) 중국에서 蓮은 江蘇, 浙江 두 省의 蓮이 가장 예쁘다고 하며, 江蘇省에서도 蘇州의 蓮이 특히 예쁘다는 평을 듣는다. 范成大는 蘇州 吳縣 출신으로 고향 石湖里的 蓮에 대한

상하다 이내 고향에 대한 서정을 느끼게 되는 ‘觸景生情’의 경지가 결미에 투사되어 있다.

꽃은 그 존재자체로도 아름다운 매력을 지녔지만 때로는 주변 환경이나 또 다른 자연물이 배경을 이루어주거나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 미감이 증폭되기도 한다. 벌과 나비, 봄비 등이 봄꽃의 화사함을 돋보이게 한다면 여름에 흠날리는 빗방울이나 연잎 위에 구르는 물방울은 연꽃이 영롱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임을 각성시킨다. 元代 完顏疇가 세밀한 필치로 못에 핀 연꽃을 그리면서 비와 연꽃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연꽃의 매력을 강조시킨 작품을 살펴본다.

「池蓮」(못에 핀 연꽃)

輕輕資質淡娟娟 가볍게 흔들거리는 모습에 맑고 고운 자태
點綴園池亦可憐 동산 연못을 수놓은 연꽃 모습 어여쁘기도 하여라
數點飛來荷葉雨 비 흠뻑러 몇 알의 빗방울이 연잎에 떨어지니
暮香分得小江天 저녁이면 그 향기는 작은 강 위 하늘에 또렷해지나니

물결 위에 가볍게 흔들리는 연꽃의 자태는 경쾌하고도 맑다. 제2구에서는 동산 연못을 점철하고 있는 연꽃의 모습을 조망하면서 이 정경을 특별히 아끼는 시인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투사하고 있다. 곱게 피어 있는 연꽃의 모습도 예쁘지만 연잎이 빗방울이 떨어져 구르는 모습 또한 별스러운 흥취를 연출한다. 이처럼 연꽃을 노래한 시가 중에 등장하는 ‘연잎’과 ‘빗방울’은 연꽃의 서정을 드높이는 매우 좋은 피사체가 된다. 末句에서 비를 맞이한 후 멀리까지 향기를 흠날리는 정경을 언급하였는데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고운 품성을 드러내는 연꽃의 의지를 느끼게 된다. 평범한 연꽃의 모습 속에도 아름다운 기백이 숨어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연꽃은 정갈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함유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거나 고결한 상대방과 함께 하는 감정을 서사할 때도 좋은 소재로

추억은 그에게 특별한 기억이었을 것이다.

활용될 수 있다. 宋代 楊萬里가 친구를 전송하며 쓴 작품에서 이별의 순간에 자주 활용되던 버드나무를 대신하여 풍성하게 피어 있는 연꽃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별의 감성 중 버드나무의 애상은 제거된 채 깔끔하게 감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曉出淨慈寺送林子方」(새벽에 정자사에서 임여방을 송별하며)
 畢竟西湖六月中 지금 서호는 분명 유월 중이라
 風光不與四時同 풍경이 다른 계절과 같지 않구나
 接天蓮葉無窮碧 연잎은 하늘과 맞닿아 끝없이 푸르고
 映日荷花別樣紅 햇살 비추이는 연꽃이 유난히 붉구나

西湖는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연꽃이 피어 있는 시기면 더욱 아름답다. 연잎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햇살 아래 빛나는 연꽃의 자태는 오늘따라 더욱 붉게 보인다. 이 좋은 정경 중에 친구를 송별하게 되니 어느새 이별의 슬픔이 사라지고 산뜻한 서정이 생겨난다. 시인은 서호의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연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별시에서 버드나무를 들어 이별을 묘사하는 것과 달리 연꽃을 등장시켰으니 이는 신선하고 청명한 멋을 느끼게 하는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연꽃은 땅 위의 꽃과 다른 수생식물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넓은 잎에 긴대를 지니고 있어 날 때부터 다른 외양을 선보인다. 장미와 찔레는 꽃이 피어 봐야 구별되고 백합과 나리도 그렇지만 연꽃은 피어나는 싹부터 다른 꽃과 구별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만개했을 때 유독 고운 색깔을 자랑한다. 한 여름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화사한 광채를 발산하며 산들거리는 바람에 큰 잎을 너울거리고 있는 의연한 자태를 보다보면 어느새 경이감을 느끼게 된다. 연꽃이 세인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처음부터 구별된 아름다움과 기품으로 향기를 발한다는 점 역시 이 꽃의 특성과 연관된 중요한 매력이 된다. 역대 시인들이 연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 자태와 향기를 칭송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결하고 순수한 품성의 반영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자태를 피워낸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나 자신만의 정결한 의식을 갖춘 사람을 연상하게 만드는 점이다. 역대 문인들은 자신의 맑은 의식을 표현하거나 세상의 어지러움과 구별된 처신을 표현할 때 연꽃의 이러한 특성을 좋은 은유대상이 된다. 의롭고 정결한 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이 있다면 사계절 꽃을 망라한 묘사가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식물을 대하는 시점이 봄이면 梅花, 가을이면 菊花, 겨울이면 松柏을 인용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연꽃은 여름철 자연을 바라보던 시인의 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유발하던 꽃이었다고 볼 수 있다. 宋代 周敦頤가 「愛蓮說」을 통해 연꽃을 군자에 비유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¹²⁾ 역시 전통적으로 인식되던 연꽃의 ‘高雅脫俗’, ‘潔身高潔’ 등의 이미지를 확고히 확립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꽃을 주제로 하거나 연꽃이 등장하는 작품 중 고결한 품성이나 정결하고 순수한 의식을 강조한 내용은 빼놓을 수 없는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애국의식의 상징으로 칭송받는 屈原은 『離騷』를 비롯한 작품에서 고결한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연꽃의 정결한 이미지를 활용한 바 있는데¹³⁾ 다음 『離

12) 周敦頤는 「愛蓮說」에서 “唐代 이래로 세인들은 모란을 아낀다. 또한 말하기를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유독 연(蓮)을 사랑하니, 진흙에서 나왔으나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기면서도 요망하지 아니하고 속은 통하되 겉은 바르며, 넝쿨을 치지도 않고 가지를 뺏지도 않으면서 향기는 멀수록 더 맑아지고, 우뚝 맑게 선 모습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때 묻히기는 어려운 까닭이라.(自李唐來，世人盛愛牡丹。又曰：‘牡丹，花之富貴者也。’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濯清漣而不妖，中通外直，不蔓不枝，香遠益清，亭亭淨植，可遠觀而不可褻玩焉。)”라고 하며 연꽃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문장은 연꽃이 지닌 전통적인 ‘高雅脫俗’의 이미지를 강화해주는 명문으로 칭송받고 있다.

13) 「九歌·湘夫人」 작품에서 “물속에 집을 짓고는, 연꽃으로 지붕을 삼는다. 창포 벽에 자란으로 만든 담벼락, 향기로운 헤초를 발라 집을 완성하네。(築室兮水中，葺之兮荷蓋。蓀壁兮紫壇，播芳椒兮成堂。)”라고 하여 上帝의 딸 湘夫人의 집을 정결하고 신령하게 짓는

騷』 중의 한 부분 역시 마름과 연꽃을 인용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離騷』 (이소)

制芰荷以爲衣兮 마름과 연꽃으로 옷옷을 짓고
集芙蓉以爲裳 연꽃을 엮어 아래옷을 삼네
不吾知其亦已兮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만
苟余情其信芳 그저 나의 마음이 실로 훌륭하기만 하다면

마름과 연꽃은 모두 물을 배경으로 자라는 식물로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데 있어 연꽃은 가장 좋은 비유물이 되는 것이다. 제3구와 제4구는 서로 도치가 된 상태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격절된 마음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屈原이 이와 같이 『楚辭』에서 연꽃을 정결한 의식을 지닌 식물로 묘사한 것은 연꽃이 정결한 이미지를 대변하게 되는 기점이 되며 후대문인에게도 연꽃 이미지의 고착화를 이루게 하는 근원이 된다.¹⁴⁾

唐代 李嶠는 연꽃의 구별된 품성을 생각하면서 옛날 屈原의 기품을 추억하는 작품을 남긴 바 있다.

것을 묘사함에 있어 연꽃 지분을 활용하였던 예를 들 수 있다.

- 14) 『楚辭』 중에서의 연꽃 묘사에 관한 연구로는 俞香順, 「荷花『楚辭』原型意義探討」, (『雲夢學刊』, 24권, 2003. 11.)를 들 수 있는데, 俞香順은 본 논문에서 “『詩經』의 원형은 여성미 의상으로 여성과 연꽃 사이에서 연꽃의 자태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여성과 연꽃 사이의 유사성을 건립하였다면, 이와 비교할 때 『楚辭』의 원형은 더욱 높은 심미적 수준을 이루어 냈다. 연꽃이 하나의 우미한 화초 이미지를 지니게 된 것에는 『楚辭』 문화 전통 중에 나오는 연꽃의 비홍과 의미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詩經』原型是女性意味意象, 女子與荷花之間的擬似建立在荷花的色相觀察, 描摹基礎之. 相比較之下『楚辭』原型體現了更高的審美層次. 荷花是一優美的花卉意象, 『楚辭』文化傳統中的荷花比興意義指涉無端.)”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楚辭』는 연꽃의 품성을 언급하며 정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詩經』에서 연꽃 자태와 여인을 연관시키는 묘사와는 다른 수준의 이미지를 창출해놓았다고 보는 의견이다.

「荷」(연꽃)

新溜滿澄陂	새로이 흘러온 시냇물 언덕 가에 맑고 그득하며
圓荷影若規	둥근 연꽃 그림자는 마치 둥근 자와도 같네
風來香氣遠	바람 불어와 향기가 멀리 퍼지니
日落蓋陰移	해 지니 그늘도 옮겨져 가는구나
魚戲排細葉	물고기는 담황색 잎을 희롱하며 놀고
龜浮見綠池	자라는 물 위에 떠서 푸른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魏朝難接采	魏나라 시대에는 이 꽃을 접하기가 어려웠으니
楚服但同披	屈原 같은 이 만이 이 꽃을 걸칠 수 있으리

맑은 물에 떠 있는 연꽃의 그림자는 반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향기까지 더해지니 연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감은 실로 무궁하며 그 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자라의 모습까지 서정성을 더해주는 존재가 된다. 이 아름답고 정결한 연꽃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屈原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다른 조대 인물 중에서는 볼 수 없는 屈原의 고결한 품덕이 새삼 그리워지게 되니 연꽃의 정결한 이미지는 사람의 심신을 정화시켜 줄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清代 鄭燮이 가을 연꽃의 매력을 강조하여 서술한 작품을 살펴보자.

「秋荷」(가을 연꽃)

秋荷獨後時	가을 연꽃은 유독 나중에 등장하여
搖落見風姿	다른 꽃이 시들 때 자신의 풍모와 자태를 드러낸다
無力爭先發	먼저 태어나오는 것을 다룰 힘이 없어서
非因後出奇	뒤에 나와 신기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지니

연꽃은 본래 봄꽃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나면 여름의 호수 면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꽃이다. 시인이 주목한 것은 가을 연꽃이니 다른 연꽃보다도 늦게 나와 다른 꽃이 조락하는 시절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다른 꽃과 겨루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허구적 상상을 가해본다. 재주를 지녔으되 다른 이와 경쟁하거나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은유한 것으로도 느껴지는 부분이다.

연꽃 자신은 맑고 깨끗한 품성을 갖고 있는데다 주변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귀한 인품을 묘사하는데 있어 좋은 소재가 된다. 역대 시문을 보면 연꽃의 장점을 칭송한 작품과 더불어 세상에서 의기를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나 ‘塵俗’과 비교되는 청정한 인품을 언급하면서 연꽃을 통한 은유를 펼친 작품도 많이 발견된다. 唐代 盧照隣이 연꽃이 사라지면 그 훌륭한 모습을 다시는 감상하지 못하리라는 언급을 통해 자신의 불운한 운명이 지닌 한계점을 슬회한 작품이 그 예이다.

「曲池荷」(曲江池의 연꽃)

浮香繞曲岸	떠 있는 연꽃 향 언덕 구비마다 둘러있고
圓影覆華池	둥근 일 그림자는 화려한 연못을 덮고 있네
常恐秋風早	가을바람 일찍 불어올까 언제나 걱정이니
飄零君不知	꽃 떨어지면 그대는 감상하지 못하리

이 시는 뜻은 컸지만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盧照隣이 永徽 3년(652)에 새로이 都尉를 맡았다가 질병으로 사직하고 고통 속에 있던 시기에 쓴 작품이다. 연꽃은 향기를 연못 언덕마다 풍기고 있고 둥근 일은 달빛을 받으며 연못을 덮고 있다.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어느새 사그라지고 마니 조락의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냘픈 식물의 운명을 갖고 있다. 결국에서는 자신도 연꽃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운명에 있음을 예감하면서 서글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운 연꽃이 달빛 그윽한 정경 속에 있는 한아한 경지를 그리다가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깊은 감회를 표출함으로써 景 속에 情을 투영하는 경지를 만들어냈다.

陸龜蒙이 연꽃 중에서도 깨끗하고 청순미가 유독 뛰어난 백련을 보면서 꽃의 기품을 알아주는 이 없는 현실을 슬퍼한 작품을 살펴본다.

「白蓮」(백련)

素蘤多蒙別艷欺 흰 연꽃은 다른 꽃이 미혹될 고운 꽃잎을 많이 갖고 있어

此花端合在瑤池 이 꽃은 실로 요지 연못에 어울리는 꽃이라
 還應有恨無人覺 알아주는 이 없으면 응당 한스러우리
 月曉風清欲墮時 새벽 달 뜨고 맑은 바람 불 때 꽃은 지려 하나니

흰 연꽃은 다른 꽃의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으며 신선이나 선녀들이 산다는 ‘瑤池’에 어울릴 정도로 빼어난 품격을 갖춘 꽃이다. 품성이 뛰어나도 이 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한울 품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모든 꽃이 조락의 운명을 맞이하되 희고 순결한 이 백련만큼은 새벽달 뜨고 맑은 바람 부는 청아한 순간에 운명을 하여 자신의 절조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서사해놓았다. 자신의 청순한 의지를 지키고 살다가 조용히 운명을 다하는 백련의 모습에서 屈原이 「漁父詞」에서 언급한 “온 세상이 탁해도 나 혼자 맑은(學世皆濁我獨清)” 경지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李商隱은 연꽃과 연잎의 조화로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세상의 공평하지 못한 의식에 대한 한탄을 가한 바 있다.

「贈荷花」(연꽃을 바치며)
 世間花葉不相倫 세간에서 꽃과 잎에 대한 생각이 같지는 않아
 花入金盆葉作塵 꽃은 금 쟁반에 들고 잎은 진토가 되게 하네
 惟有綠荷紅菡萏 오로지 푸른 연잎과 붉은 연꽃 봉오리만이
 卷舒開合任天真 잎을 폼다 말았다 천연의 미를 펼치누나
 此花此葉常相映 연꽃의 꽃과 잎은 언제나 서로를 비추어주어
 翠減紅衰愁殺人 잎의 푸른색이 덜하거나 붉은 꽃이 쇠할 때면 근심에
 짓게 하나니

꽃과 잎은 본래 같은 줄기에서 나왔지만 꽃이 화려한 색깔을 자랑할 때 잎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붉은 꽃은 푸른 잎의 보좌를 받을 때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 꽃이 금화분에 들어가 분재로 칭송받을 때 잎은 제거되어 썩어져가는 운명에 처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공평하지 못한 대우와 신세가 있음을 비유한 내용이다. 더러운 진흙을 딛고 아름다운 꽃을 피

위넨 연꽃은 꽃과 잎이 함께 서로를 보좌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세속의 차별과 대조가 된다. 이처럼 서로를 빛내며 아름다움을 발하는 연꽃과 연잎의 조화에 대하여 시인은 “천성 따라 피워낸 미(任天真)”라는 칭찬을 가하고 있다. 말구에서는 연꽃과 연잎은 모두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지녔다고 보는 시각을 밝히면서 연꽃을 주고받는 자신과 지인 모두 세상에서 실의하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을 행간에 투영한 것이 발견된다.

연꽃은 더러운 바탕을 지니고 있을 지라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피어나며 꽃과 잎의 고운 자태와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연잎 위에 물이나 오물이 닿았다 해도 그대로 굴러 떨어질 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악한 환경에서도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나 정결한 의식, 타인을 아우르는 따뜻한 인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연꽃만큼 적절한 식물 소재도 없을 것이다. 수생식물에게 정결함의 의미를 지닌 ‘물’의 이미지를 본래부터 함유하고 있는데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으므로 연꽃의 굵고 화사한 자태는 칭송을 받기에 더욱 합당한 이유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Ⅲ. 결어

지구상에 꽃이 피는 식물은 약 30만종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종류가 있다. 대지를 딛고 꽃을 피워내는 꽃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란 힘든 일이다. 육지의 식물이 아름다움을 서로 다투는 동안 연꽃은 수생식물답게 물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미를 견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킨다. 시문에 등장하는 연꽃이 ‘다툼’, ‘시기’ 등의 이미지를 지닌 육지 식물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또한 연꽃만의 고고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연못을 가득 덮고 있는 풍성한 푸른 연잎을 배경으로 희고 붉은 색을 피워낸 꽃의 모습은 그 자체로 조화롭고 훌륭한 풍경을 연출한다. 가까이에서 꽃과 연잎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모두가 둥글고 원만하여 마음까지 절로 온화해지고 맑아지게 됨

을 느낀다. 맑은 바람이 세미한 물결을 일렁이는 여름 연못에 단아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연꽃 한 송이를 보다보면 속된 느낌은 사라지고 맑고 기품 있는 의식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蓮은 오염된 진흙탕에서 태어난 출신성분을 극복하고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능력과 의지를 지녔다. 연못에 연꽃이 피게 되면 물 속 시궁창 냄새는 어느덧 사라지고 주변에 그윽한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니 시문 중에서 주변을 밝히는 훌륭한 인품을 은유하기에 더 없이 좋은 식물 소재가 되는 것이다. 연꽃은 꽃을 피워내고 난 후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선사하며 타인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좋은 효용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蓮’은 수생식물 중 자태와 품성 모든 면에 걸쳐 다른 식물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을 지닌 식물이다. 연꽃이 외모와 성품, 효용성 면에서 어느 꽃과 식물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연꽃에 대한 그간의 칭송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劉 鏞, 『詠花古詩欣賞』, 北京: 語文出版社, 1999.
- 徐曄春, 『觀花植物千種經典圖鑑』, 吉林: 吉林出版集團, 2012. 11.
- 金 波, 『花卉寶典』,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6. 1.
- 周嘯天, 『似花不似非花』, 南京: 鳳凰出版社, 2006. 9.
- 기태완, 『花情漫筆』, 서울: 고요아침, 2007.
- 기태완, 『꽃, 들여다보다』, 서울: 푸른지식, 2012.
- 김태정, 『우리 꽃 백가지』, 서울: 현암사, 1990.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 넥서스, 2004. 3.
- 俞香順, 「荷花'楚辭'原型意義探討」, 『雲夢學刊』, 24권, 2003. 11.
- 李青雲, 「從唐宋荷花詩詞管窺唐宋文人愛花心態」, 『鄂州大學學報』, 2012. 5.
- 吳倩倩, 「論唐宋江南采蓮詩詞」, 『湖州職業技術學院學報』, 2012. 제4기
- 張文文, 「論蓮荷意象在唐代的發展演變」, 中國石油大學 석사논문, 2014. 4.
- 劉麗丹, 「淺析古代詩歌中的荷花意象」, 『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 28권, 2008. 3.

ABSTRACT

A study on the various symbols of Lotus in Ancient Chinese poetry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the various symbols of Lotus in Ancient Chinese poetry. The various symbols of Lotus in Ancient Chinese poetry ar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the Lotus is the messenger of love and longing. The pronunciation of '蓮(lian)' is similar to '戀(lian)', and it can easily raises the emotions of love in people's mind. Therefor a lotus song is generally known as the expression of love.

The second, the Lotus is the owner of fine figure and clean scent, and also expressed as the symbol of fascinating beauty. This attribute of Lotus well beloved by all the people and many poets represented the special beauty in their expression.

The third, the Lotus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special ability to purify dirt. The Lotus born from the polluted mud but also have power to purif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en the lotus is poured into the pond, the smell of the gutter in the water disappears, and the fragrance around it is filled up, so it becomes a better plant material to metaphorize the good personality that illuminates the surroundings.

Key words : Lotus, Symbols in poetry of Lotus, the expression of flowers, Sense of beauty, Ancient Chinese poetry, flower

투 고 일 : 2018. 10. 10. / 심 사 일 : 2018. 10. 15. ~ 2018. 11. 15. / 게재확정일 : 2018. 11. 20.